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07호 [무게 제 24985호] 주제 104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
들과 전사공로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맞아 동
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평
화를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과 중국인민지
원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
두돔을 맞으며 오늘 성대히 열린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어 반제혁
명전쟁에서 백승을 아로새겨온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전통
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
이며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백두산대국
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떨치는
의의깊은 대회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미일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는 두차례
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전진투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전쟁로병들은 불타는 전초기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
를 부르던 그때처럼 로쇠를 모르
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
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피줄기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전화의 나날 영웅전사들속에서
발휘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
이 모든 인민군장병들의 신념의
기둥으로, 최고사령관의 명명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혁명적군공
이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기강으
로 억척같이 세워져야 하며 한치
의 땅도 목숨바쳐 지키는 열렬한
조국애와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필적의 투지가 근
위부대운동이 전개되는 혼란장과
싸움터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져
야 합니다.
맨손으로 피대를 둘러며 전시
생산을 보장한 그 정신, 폭격속
에서도 식량증산과 전시수송, 전진
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 기
백이 나날될 때 경제강국건설의
진구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
적과 혁신이 연이어 창조되고 온
나라에 황금벌, 황금해, 황금산의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게 될것
입니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 세대
들, 청년들을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특별한 주목을
둘러고있습니다.
청년문제이자 혁명의 계승문제이며 혁명위업계승
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적형통, 신념의 피의
계승입니다.
청년들은 선열들이 피로써 창조한 조국수호정신을
뼈에 새겨안고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의
부름앞에 한물 서슴없이 내대야 하며 불타는 애국심과
아름다운 리상,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선군혁명의
제1선참호와 대진실전투쟁들에 용약 달려나가 세상에
자랑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선군청년전위 의용병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
선배로 존대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고유한 품모이며
전통입니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
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여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인 전
쟁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영예감을 가지고
로당일장하면서 자기의 한생을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폐전의
수치와 수심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고 최후의 발악
을 다하고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력사의 법칙적인 전통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또다시 걸어온다면 우
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들어보내줄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미제
와 보병총을 잡고 맞서 싸우던 1950년대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
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어사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있다
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력사
의 필연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전사공로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들의 건강장수와 가정의 행복을 축원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의
조국을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항일혁명투사
동지들과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
취한 동지들과 전국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과, 그리고
전사공로자동지들에게 최대의 경의
를 표하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더불어 조선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
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
전쟁을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의 7.27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
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
하려고 집어들던 미제
국주의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긍지높은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
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것은 인류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
이며 발만찔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력사적사
변이었습니다.
침략과 약탈로 비태해지고
오만해진 미제를 물리
치는 조국해방전쟁은
사실상 맨주먹으로 횡포한
날 강도무리와 맞서는것과
같은 어려운 싸움이었으며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쟁
에서 조선인민이 이겼기
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치는
가말한 판가리싸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자기의 조
국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우리 나라는 새로운 세계대
전을 막아낸 영웅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널리 알
리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오만무례한 미국놈들을
타승하고 미제의 성조기에
불을 달고 공화국기를 휘날
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
리던 승리의 그날로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구한 기간 반미투
쟁의 최전선으로 되오는데
이 땅위에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떨치지 않는 때는 없었고
세계의 정치정세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끄떡없이 자주적
군위병의 위용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조국은 반제
자주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전통이라 하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
국놈들에게는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불세출의 전설적명장들이
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
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
술에 의하여 창조되었
으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세련한 증견자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입니다.
우리 당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뿐 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건설수호의
맥통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청춘도 생애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
자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세 세대의
가슴속에는 진승세대의
모습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
와 같은 유망명령의 영웅
들의 군상으로 소중히
새겨져있습니다.
육천한치의 땅을 지켜
피를 흘리는 가슴으로
회점을 막고 육천으로
적과 땅을 맞받아나간
영웅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아니
었다면 존엄높고 강대한
사회주의조국, 로동당의
손길아래 복락을 누리
갈 후손만대의 삶의 보
금자리가 없었을것입니
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불
사신의 기상으로 침략
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온 인민군용사들의
전설적인 위훈담들과
피어린 자욱들은 절대로
잊혀질수도 지워질수도
없으며 강성하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
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
략군대에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실적으로 보
여주었습니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제국주의연합
세력의 대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적
으로 믿고 의지한것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
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였으며 세
상을 경탄시킨 무비의
용감성의 원천은 조국
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 억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백두의 혁
명정신이었습니다.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가 방
대한 전쟁장비와 추
종국가군대들까지 총
동원하여 발악적인 공
세를 거듭했지만 자기
것에 대한 믿음과 사
랑으로 총만질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
었으며 침략의 무리
들은 전쟁기간 심대
한 정치군사적, 정신
적참패를 면할수 없
었습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
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
수 없는 최강의 힘
이며 우리 세 세
대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로병들
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었 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천만군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총공격을 힘있게 다그치며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새 역사를 펼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국해방 일흔돌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로병들의 긍지높은 대회참가 마련된것은 위대한 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는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승리사에 특기할 의의깊은 사변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과 애국헌신을 값높이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린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영웅적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서 중대한 역사적계기로 된다.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고있는 새 세대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존엄,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반미대결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진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리을설동지,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최영림동지, 태중수동지와 로병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개회가 선언되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열정에 넘치신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혁명선배들이 창조하고 빛내여온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최후승리의 7.27을 기어이 안아올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이 4.25문화회관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원수복을 입으시고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세계 《희망》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승리한 고지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올리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주석단배경에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라는 글발과 군공 메달모형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에 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열정에 넘치신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었 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선군혁명병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격려해주셨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 맥박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 필승불패의 보검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크나큰 감격과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반제혁명전쟁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로병들의 불굴의 정신과 기상, 투쟁본매를 계승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위대한 승리와 위훈의 년대로 빛내여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온 로병들에 대한 가장 값높은 평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에는 당과 수령의 병도를 충직하게

반들어온 로병들의 고귀한 넋과 애국헌신의 피와 땀이 뜨겁게 습배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 로병들인 항일혁명투사들과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용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조국해방전쟁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빛나는 전승의 력사를 창조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력량상 대비조차 안되는 이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을 통폐하게 쳐물리치고 민족의 천만년미레를 지켜낸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병도밑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병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결머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원수 격멸의 천민항전으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영웅사시를 창조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4 면 으 로 계 속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였 다



3 면 에 서 계 속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원불멸할 시대정신인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정신력의 강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피로써 역사에 아로새기었다고 말하였다.

조국수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승고한 혁명정신이며 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낸 열렬한 조국애의 정신이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백철불굴의 의지로 총만된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수호정신의 창조자, 구현자이신 로병들이 진후 60여년세월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위력을 떨치는데 불멸의 기여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억척의 신념과 순결한 의리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혁명위업계승의 민족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앞장선것은 로병들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1990년대의 나날에도 로병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신념과 의리의 한모습으로 받드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없는 믿음속에서 우리 로병들은 긍지높은 혁명선배로, 나라의 보배로 영광찬란 삶을 누리며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역세게 걸어왔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친필로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과 업적을 조국청사에 더욱 값높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우리 로병들의 불멸의 공적은 세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로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승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었다.

그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그 정신, 그 전통을 이어 침략자들을 깨뜨리 싸워버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민족과 로병들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축포를 장쾌하게 쏘아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 하자면 전체 군대와 인민을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로병들이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지난날 혁명대오의 진렬에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광심으로 충직하게 받아들여온것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인생을 값높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데서 혁명선배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한다.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고귀한 제보로 간직하고 드림없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 우리 후대들의 승고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로병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할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장병들을 조국수호정신의 열렬한 체현자, 사상과 도덕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며 모든 부대들을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 전투에서도 백승할수 있는 무적의 전투력을 지닌 최정예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을 끝까지 관철하는 길에 조선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국방공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려나가는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침략자들과 싸워이긴 전민항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단애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군민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한다.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흔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화의 그 정신, 그 투지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열혈투사가 되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최후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감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김정은시대의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이 되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펼치고 우리 조국에 통일강국의 문패를 거어 달아야 할것이다.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적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야 한다.

로병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라는 긍지를 안고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도록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실성의로 돌봐주어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 해주신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통과 튼튼한 토대가 있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투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차넘쳤다.

대회는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7.27의 전통과 력사는 굳건히 이어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받아안은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새차게 끓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환의 그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날마다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진로병들의

승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빛나는 위훈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것입니다.』

승리의 날, 전승의 명절을 눈앞에 두고 성대히 열린 제4차 전국로병대회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가까지 뵈는 것만도 가슴벅차오르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전진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피로써 조국을 지킨 온인으로 감동이 불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이 흥분하여 울었다.

본사편지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감격에 넘쳐 아기가 꽃을 펼치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의 격동적인 심정을 아래에 전한다.

어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 있다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고 확신있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이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유산이다. 그것은 전진로병인 우리들의 마지막전투무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임무수행에 한몫 서슴없이 바치던 전희의 나날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후대들에게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었다. 돌아가시도 로병기 동애순동태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이어받은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딸들로 키우는데 적극이 바치겠다.

정조약전진로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적함을 꾸부시며 조국의 바다를 마음속으로 지키던 전희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고 하면서 자기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승리의 신심이 넘쳤다.

나는 전진로병 해안포병으로 싸웠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적수상을 높이 받들고 용감히 싸우던 전희의 그날들이 눈에 선하다. 그때를 돌이켜볼 때면 나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지녔던 조국수호정신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

백방상으로나 무장장비로나 우리는 적들과 대비도 되지 않았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대회참가자들의 속소방문한 우리의 눈앞에 흥분으로 설레이는 전진로병들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대회장에서 받은 축하연설을,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에 대해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김창덕전진로병은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한없는 격정에서 받아들였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정말 꿈만 같았다. 전국로병대회를 또다시 마련해주시고 전진로병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도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시는 재래로운 그 영광을 누리며 눈물부터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올 때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오면 꼭 자기들의 마음을 합쳐 인사를 드러달라는 가족,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의 당부 가슴속에 안고있는 우리 전진로병들이었지만 우리 원수님을 그처럼 빨리 뵈옵게 될줄은, 원수수님께서 이렇게 축하의 연설부터 해주실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전사가 평토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드시는 정을 안겨주시니 이 심정을 어떻게 터놓았으면 좋겠는지 정말 모르겠다.

해방전 빈들의 가정에서 태어나 인민이 된 나의 학과 수모를 받아오던 내가 참된 삶을 누리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그대부였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이 목숨보다 귀중하기에 피로써 조국을

수호하였다.

세상에는 조국을 지켜싸는 전승세대들 나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처럼 전진로병들을 귀중히 여기고 감동이 내세워주는 명도자가 그 어느 나라에 있는가.

전진로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불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자꾸만 귀전에 울려와 부풀어오르는 심정을 누를줄 없었다.

정말이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고명의 몸에도 복받은 삶을 누리는 우리 전진로병들이었다.

김중하전진로병은 흥분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고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의 그 시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대회장에서 나와 뱃속에 울라셔도 그냥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 존경하는 로병동지들끼리 그 뜻이 정답이 불려주시는 때, 우리 전진로병들의 건강장수와 가정의 행복을 축원해주실 때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승광장의 연대에서 우리에게 축하를 보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재래로운 모습이 눈앞에 어렸고 열병시광장의 주석단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가슴이 들러오곤 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에게 들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는가.

우리 전진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생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서깊은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사회주의공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넘치기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영예로운 조국방위전쟁 참전자들에게 대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 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재자구구 심장에 새겨놓을수신심과 용기가 부쩍 솟는다고 하면서 김중하전진로병은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사리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또 많은 충포탄을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숨기찬 강도로 사하는 복받은 전진로병들이었다.

세상에는 로병들이 많지만 우리들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조국과 혁명에 필요한 세대로 사는 복받은 전진로병들은 없다.

우리 전진로병들을 인성발전에도 당과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에 태를 묻은 조국의 아들딸로서 용당 피를흔 우리들을 온 인이라고 불려주시는 원수님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온넉이 풀린다.

조국당 그 어디서나 전진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신병으로 존경하고 내세워주시는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행이라도 있을때라도 세심히 보살펴주는 아들다운 미담들이 봄날의 화원처럼 꽃피고 나고 있다.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알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아무런 불편없이 평양으로 갈수 있게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에도

우리 전진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생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서깊은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사회주의공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넘치기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영예로운 조국방위전쟁 참전자들에게 대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 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재자구구 심장에 새겨놓을수신심과 용기가 부쩍 솟는다고 하면서 김중하전진로병은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사리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또 많은 충포탄을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숨기찬 강도로 사하는 복받은 전진로병들이었다.

세상에는 로병들이 많지만 우리들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조국과 혁명에 필요한 세대로 사는 복받은 전진로병들은 없다.

우리 전진로병들을 인성발전에도 당과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에 태를 묻은 조국의 아들딸로서 용당 피를흔 우리들을 온 인이라고 불려주시는 원수님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온넉이 풀린다.

조국당 그 어디서나 전진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신병으로 존경하고 내세워주시는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행이라도 있을때라도 세심히 보살펴주는 아들다운 미담들이 봄날의 화원처럼 꽃피고 나고 있다.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알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아무런 불편없이 평양으로 갈수 있게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에도

이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그렇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후대들에게 조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정신을 넘겨주는 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가 세득한 진리, 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대포도 미행도 무섭지 않고 원민대적으로 쳐들어올수 없다는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다. 그것은 전진로병인 우리들의 마지막전투무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임무수행에 한몫 서슴없이 바치던 전희의 나날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후대들에게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었다. 돌아가시도 로병기 동애순동태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이어받은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딸들로 키우는데 적극이 바치겠다.

정조약전진로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적함을 꾸부시며 조국의 바다를 마음속으로 지키던 전희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고 하면서 자기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승리의 신심이 넘쳤다.

나는 전진로병 해안포병으로 싸웠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적수상을 높이 받들고 용감히 싸우던 전희의 그날들이 눈에 선하다. 그때를 돌이켜볼 때면 나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지녔던 조국수호정신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

백방상으로나 무장장비로나 우리는 적들과 대비도 되지 않았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올 때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오면 꼭 자기들의 마음을 합쳐 인사를 드러달라는 가족,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의 당부 가슴속에 안고있는 우리 전진로병들이었지만 우리 원수님을 그처럼 빨리 뵈옵게 될줄은, 원수수님께서 이렇게 축하의 연설부터 해주실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전사가 평토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드시는 정을 안겨주시니 이 심정을 어떻게 터놓았으면 좋겠는지 정말 모르겠다.

해방전 빈들의 가정에서 태어나 인민이 된 나의 학과 수모를 받아오던 내가 참된 삶을 누리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그대부였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이 목숨보다 귀중하기에 피로써 조국을

우리 전진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생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서깊은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사회주의공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넘치기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영예로운 조국방위전쟁 참전자들에게 대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 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재자구구 심장에 새겨놓을수신심과 용기가 부쩍 솟는다고 하면서 김중하전진로병은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사리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또 많은 충포탄을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숨기찬 강도로 사하는 복받은 전진로병들이었다.

세상에는 로병들이 많지만 우리들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조국과 혁명에 필요한 세대로 사는 복받은 전진로병들은 없다.

우리 전진로병들을 인성발전에도 당과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에 태를 묻은 조국의 아들딸로서 용당 피를흔 우리들을 온 인이라고 불려주시는 원수님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온넉이 풀린다.

조국당 그 어디서나 전진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신병으로 존경하고 내세워주시는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행이라도 있을때라도 세심히 보살펴주는 아들다운 미담들이 봄날의 화원처럼 꽃피고 나고 있다.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알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아무런 불편없이 평양으로 갈수 있게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에도

이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비친 배짱과 담력이 어찌던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며 남강도 미국놈들을 담배기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제국주의때부러들이 달려들던 1990년대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혁명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배짱, 그 담력, 그 폭넓은 지식과 정열, 우리 원수님은 백두산이 언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그리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

이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비친 배짱과 담력이 어찌던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며 남강도 미국놈들을 담배기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제국주의때부러들이 달려들던 1990년대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혁명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배짱, 그 담력, 그 폭넓은 지식과 정열, 우리 원수님은 백두산이 언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그리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

이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비친 배짱과 담력이 어찌던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며 남강도 미국놈들을 담배기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제국주의때부러들이 달려들던 1990년대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혁명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배짱, 그 담력, 그 폭넓은 지식과 정열, 우리 원수님은 백두산이 언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그리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

이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들으며 우리 전진로병들은 이겼다, 미제와의 최종결전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심장으로 채우고 또 채웠다.

대들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슴 넘쳐난다고 하면서 김영경전진로병은 말하였다.

우리 전진로병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열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 사찰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방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던 즉시적인 심벌적반 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고 명명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소식, 조선인민군 전학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지난 세계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묘해왔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력사적으로 원뼌을 맞고 녹아나기만 했으니 미제의 수처사 러운 전봉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섬세한 미국을 걸음마다 통째로 축적대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적적인 두 전통을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는 소식...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비친 배짱과 담력이 어찌던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며 남강도 미국놈들을 담배기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제국주의때부러들이 달려들던 1990년대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혁명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배짱, 그 담력, 그 폭넓은 지식과 정열, 우리 원수님은 백두산이 언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그리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

박근혜의 못된 악담질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

전 국 련 합 근 로 단 체 대 변 인 담 화

우리는 벌써 여러차례 걸쳐 잘못 놀린 혀는 제목을 베는 칼이 된다고 박근혜에게 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박근혜의 불찰사나운 입이 이 나라의 재앙이고 민족의 우환거리이기때문에 혹독하고도 할 정도로 추궁하고 일깨워주시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여전히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동경상대가 지속되고있는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이에 응징해 버려야 한다는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지금 박근혜의 별난 웃주제를 보고도 이 나라의 녀성들이 힘을 뻗는다. 자기를 모르면 남도 모르고 세상리지는 더욱 알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정치적으로 아둔하고 상식밖으로 저능한

박근혜에게 지난 7월 20일 채워준 망발이 얼마나 뼈들어진 사고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질책해주고 한다.

1.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이라고 제쳐냈는데 진짜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는것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진짜 걸림돌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과 그에 병종하고있는 박근혜일이다.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영구정침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 대한 강점으로 이어놓으려는 음흉한 기도를 속에 품고 그 실현을 위해 동족상쟁을 부추기고있는것이 남강도 미국이고 그에 놀이나 동족대결행동에 여념이 없는것이 바로 박근혜와 그 폐망이기 때문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이 해치고 이 땅의 안정은 박근혜자신과

그의 치마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역적무리들의 대결과 적화가 가로막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핵무기를 개발》하고 병진로선에 집착하고있다고 떠벌이었는데 대 병진로선이 가지는 지대한 의의부터 똑바로 새겨야 한다.

우리의 병진로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핵보검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핵전쟁행동으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상용무력건설에 지출되는 막대한 자금을 인민생활향상에 돌리게 되는것이 바로 이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병진로선의 진수이다.

우리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는

무로교육과 무상치료, 쓰소살 권리를 비롯한 그 모든 사회적혜택을 합쳐보라.

그러면 남조선이나 미국이 떠드는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은 대비조차 안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며 박근혜는 스스로 얼굴을 붉히게 될것이다.

3. 《핵포기》라는 전락적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그 무슨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재 넘는 소리를 제쳐냈는데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제손으로, 제발로, 제힘으로 강성변영의 한길로 줄달음쳐왔다. 우리가 추켜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의 참뜻이나 똑바로 새겨야 한다. 제것으로 부흥하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애당초 제것이 없는 남조선의 수습 주도형거점경제에 비할바라지 우월하다.

미국은 조선의 경제가 미국에 매달릴수록 즉속으로의 길만 앞당기게 될것이다.

호된 정벌을 받은 도발자들의 첫 비명소리가 울려나올 곳도 서남해상점점수역이며 침략자들의 매혹음을 미국의 명망으로 이어놓을 곳도 다음이던 서남해상 점점수역이다.

미국은 서남해상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이 수역을 최악의 점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행위에서, 우리 민족에게 천후만대를 두고두고 풀수 없는 한을 남긴 대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4(2015)년 7월 25일

사대주의를 하면 망한다고 하였다.

순이사대에 써들대로 써든 박근혜인 경우 미국에 기대어선 유지될수 있는 병약한 남조선경제나 걱정하는것이 좋을것이다.

4. 마치 《핵과 인공, 도발》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그 누구에나 허여해 발생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재가 추구하는 《통일》이 《국적적인 해결방도》 인것처럼 떠벌이었는데 대 병진로선의 개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민족공통의 보편인 우리의 력도 아니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에서는 애당초 있을수 없는 《인권문제》이다. 해결이 아니라 한사피해 종식시켜야 할 문제는 우리에게만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이고 파초독제가 란무하는 인권불모지인 남조선사회의 인권이며 매일같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괴뢰군부조력자들의 형형색색의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이 모든 악행은 박근혜가 채쳐대는 《리념적공수통일》이 아니라 온 민족이 바라는 자주적통일이 실현될 때 비로소 종식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박근혜는 이번 악담질로 자신이 스스로 천하에 물든다고 누구에나 허여해 발생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재가 추구하는 《통일》이 《국적적인 해결방도》 인것처럼 떠벌이었는데 대 병진로선의 개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민족공통의 보편인 우리의 력도 아니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에서는 애당초 있을수 없는 《인권문제》이다. 해결이 아니라 한사피해 종식시켜야 할 문제는 우리에게만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이고 파초독제가 란무하는 인권불모지인 남조선사회의 인권이며 매일같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괴뢰군부조력자들의 형형색색의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주제104(2015)년 7월 25일

미국은 서남해상을 최악의 열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피괴전환들이 백병도와 연평도일대에서 매일 같이 광란적인 로석계편을 감행하면서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에 주심을 부리고있다.

이로 하여 혐에한 서남해상점점수역의 정세는 더욱더 긴장되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 모든 군사적도발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것이다.

지난 20일에도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화성기를 들고 나온 미제침략군들은 서남해상점점수역에서 피괴들이 감행하는 불법난이 《일상적인 혼란》이며 그것이 《경세되는 전혀 무관하다.》고 불어대는 극히 파멸적인 《사건정보》를 내놓을 버렸다.

도발적인 포사격 당일에는 그 무슨 점점점점수역 《확인》한다는 구실밑에 《국제참관단》의 간관을 단 어중어중이 들켜 도발행위에 돌이킬수 없게 피괴전환들의 도발행위에 부패를 하였다.

미국이 혐에한 서남해상점점수역에 피

로 긴장적화시키고있다.

《불법어선단속》을 구실로 우리측 명함에 피괴환선들과 어선들을 번갈아내 침범시키고있는 주범도 다음이던 미국이며 열점수역 상공에 유인, 무인비행대를 빈번히 돌이킬수 없게 돌이켜지고 있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서 여러차례의 류형적인 해상무력충돌이 발생하고 북남관계사상 처음으로 불과 불이 오간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게 된것도 구경은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계획적인 음모와 전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미국이 서남해상점점수역에서 피괴들을 내몰아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고, 는데는 퇴색되어가는 《유연군》사령부의 존재분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리서는 속내도 숨겨져있다.

우리 군대는 미국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것을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도발의 본지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의 무차별적인 직접조선사격전선에 들어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피괴환을 내세워 열점수역에서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매달릴수록 즉속으로의 길만 앞당기게 될것이다.

호된 정벌을 받은 도발자들의 첫 비명소리가 울려나올 곳도 서남해상점점수역이며 침략자들의 매혹음을 미국의 명망으로 이어놓을 곳도 다음이던 서남해상 점점수역이다.

미국은 서남해상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이 수역을 최악의 점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행위에서, 우리 민족에게 천후만대를 두고두고 풀수 없는 한을 남긴 대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4(2015)년 7월 2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올리베르 오스카리아트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면대성위원회 위원장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올리베르 오스카리아트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면대성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피괴환의 반공화국압박행동에 부각을 금지 못하면서 경중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경제가 미국에 매달릴수록 즉속으로의 길만 앞당기게 될것이다.

호된 정벌을 받은 도발자들의 첫 비명소리가 울려나올 곳도 서남해상점점수역이며 침략자들의 매혹음을 미국의 명망으로 이어놓을 곳도 다음이던 서남해상 점점수역이다.

미국은 서남해상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이 수역을 최악의 점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행위에서, 우리 민족에게 천후만대를 두고두고 풀수 없는 한을 남긴 대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4(2015)년 7월 2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올리베르 오스카리아트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면대성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피괴환의 반공화국압박행동에 부각을 금지 못하면서 경중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경제가 미국에 매달릴수록 즉속으로의 길만 앞당기게 될것이다.

호된 정벌을 받은 도발자들의 첫 비명소리가 울려나올 곳도 서남해상점점수역이며 침략자들의 매혹음을 미국의 명망으로 이어놓을 곳도 다음이던 서남해상 점점수역이다.

미국은 서남해상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이 수역을 최악의 점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행위에서, 우리 민족에게 천후만대를 두고두고 풀수 없는 한을 남긴 대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4(2015)년 7월 2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올리베르 오스카리아트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면대성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피괴환의 반공화국압박행동에 부각을 금지 못하면서 경중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경제가 미국에 매달릴수록 즉속으로의 길만 앞당기게 될것이다.

호된 정벌을 받은 도발자들의 첫 비명소리가 울려나올 곳도 서남해상점점수역이며 침략자들의 매혹음을 미국의 명망으로 이어놓을 곳도 다음이던 서남해상 점점수역이다.

미국은 서남해상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이 수역을 최악의 점점수역으로 만든 범죄적행위에서, 우리 민족에게 천후만대를 두고두고 풀수 없는 한을 남긴 대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제104(2015)년 7월 25일

